추석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KOLPING 콜핑이면 충분하다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086호 1판 (음력 8월 11일) 2019년 9월 9일 월요일

조국, 임명이냐 철회냐 길어진 '대통령의 시간'

찬반 넘어 '진영대결' 양상
어떤 선택하더라도 '후폭풍'
오늘 최종 결정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문 대통령이 임명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조 후보자 부인 기소 등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임명 여부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모양새다. 조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단순한 찬반을 넘어 '진영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임명 강행 분위기에서 임명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오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문 대통령이 9일 최종 결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조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명 강행을 통해 조 후보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과 조 후보자를 반대해 온 여론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한데다 자칫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여지가 크다. 아울러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개혁 역시 힘을 받기 쉽지 않다. 또 경제와 안보의 위기 상황에서 중도층 민심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 철회' 카드를 꺼내들기도 쉽지 않다.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아온 검찰 개혁의 상징적 인사가 낙마한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 큰 내상을 남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어려워지는 등 국정운영 전반에 힘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또 조 후보자를 지지해 온 여권 핵심지지층의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오후 2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조 후보자의 임명을 지지하는 청원에 68만5000여명,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37만7000여명이 동의하는 등 핵심 지지층들의 '화력결집'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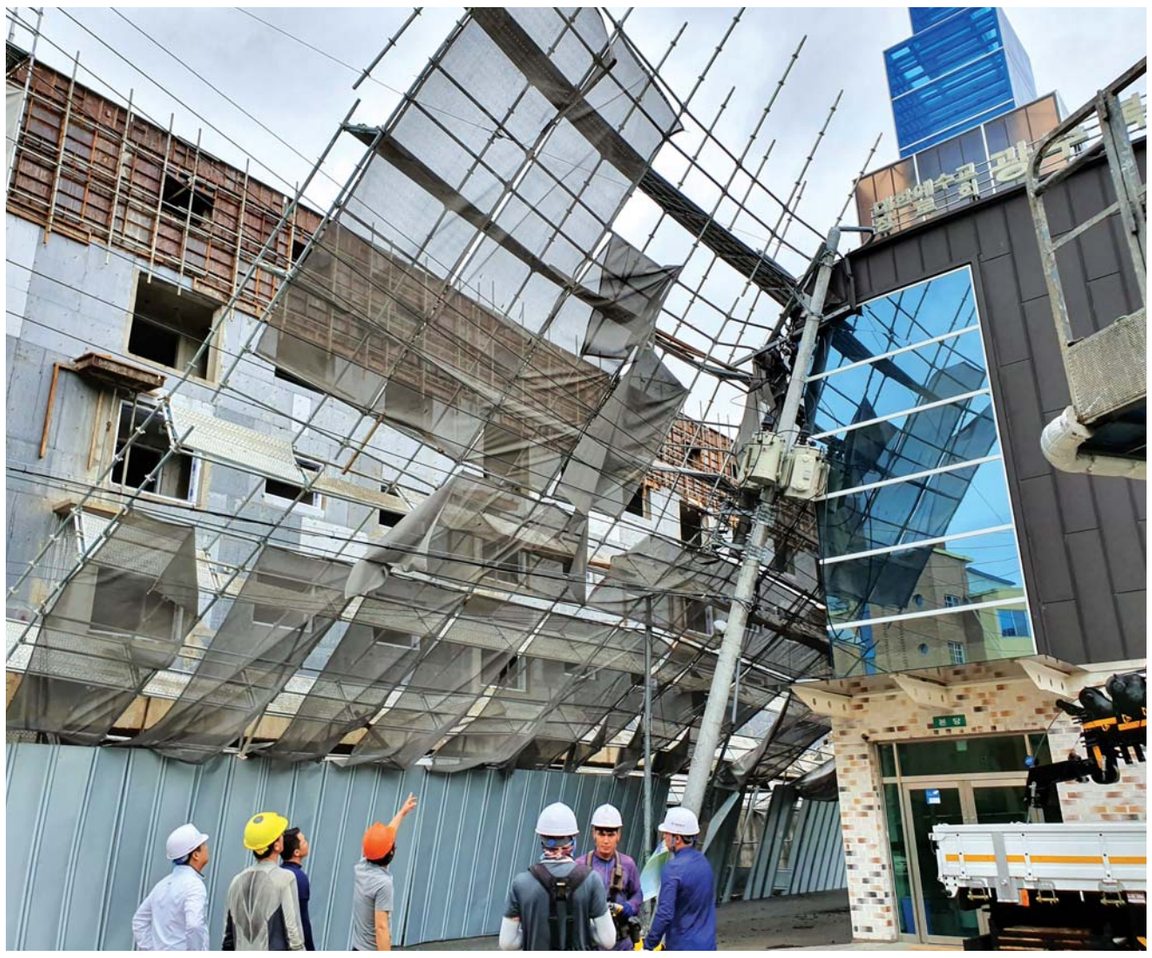
일각에서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때까지만 장관직을 수행토록하는 조건부 임명 카드를 거론하고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전례가 없는데다 조건부 카드로는 검찰도, 야당도 제압하기 어렵고 민심의 이해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9일 오전까지 핵심 참모들은 물론 다양한 그룹의 인사들로부터 조언을 들으며 최종 결심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9일까지 임명 여부를 결정 지으리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9일 이후로 임명이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심의 이해를 구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송부시한 요청 뒤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는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당시, 1월 19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후에도 여야의 협상을 지켜보다 24일이 돼서야 임명을 한 바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9일 오전까지 고민을 거듭한 뒤, 이날 오후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임명 강행 카드가 더 우세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한 7일 오전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공사장 가림막이 강풍을 견디지 못해 기울어져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낙과에 쓰러진 벼 … '농심은 낙심'

태풍 '링링' 곳곳에 생채기
광주·전남 응급복구 나서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할퀴고 간 광주·전남 곳곳에서 벼가 쓰러지고 과실이 떨어지는 등 생채기가 났다. 인명피해 등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추석 대목을 앞둔 농민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한 상황이다. 〈관련 기사 6면〉

8일 전남도에 따르면 태풍 '링링'이 지난 7일 목포 서쪽 140㎞ 해상을 시속 44㎞로 지나면서 신안 흑산도 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4.4m, 가거도항에서는 52.5m를 기록했다. 진도 서거차도에선 초속 40.7m, 무등산에선 33.8m의 강풍이 불었다. 강수량은 무안군 해제면이 124㎜, 지리산 구례 성삼재 122.5㎜를 기록하는 등 전남지역 평균 51.7㎜였다. 광주시는 남구 43.5㎜ 등 평균 누적강수량 29.7㎜의 비가 내렸다.

8일 오후 5시 현재 집계된 전남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해남·강진·나주·보성·영암·장성 등에서 벼 3849㏊가 쓰러졌고, 나주 배 농가 465㏊를 비롯한 1160㏊에서 과일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남·무안·곡성·순천·강진 등에서는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피해 규모도 7㏊에 달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에 접수된 농작물 손해보험 피해 사고 접수는 577건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안 흑산도 전복어가 등 5어가의 양식시설이 파손됐고, 진도군 고군면 해안도로 등 도로 4곳 일부가 유실됐다.

지난 2013년부터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 방파제는 옹벽 50m가 유실되는 등 또다시 피해를 입어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16개 시·군 1만5886세대는 한때 정전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광주에서는 가로수 쓰러짐 27건, 간판·현수막 파손 50건 등 시설피해 244건이 접수됐다.

전국적으로는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충남 보령군에서 70대 여성이 강풍으로 인해 지붕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또 농작물 7145㏊가 피해를 입었고 2444그루의 가로수가 넘어졌다. 16만1646가구가 한때 정전됐으며 제주도 서귀포에서는 돼지 500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태풍 피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지원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공공시설은 14일, 사유시설은 17일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태풍은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했음에도 우려보다는 피해가 적은 편"이라며 "모든 인력과 장비 등을 총동원해 조속히 응급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비건, "한국·일본 핵무장" 거론

북미협상 실패 위험성 부각하며 북에 협상 압박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6일(현지시간) 북미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국가 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북 실무협상을 이끌어온 비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협상 실패 상황의 위험성을 부각, 북한에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한일의 핵무장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중국에 추가적 역할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비건 대표는 이날 모교인 미 미시간대 강연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의 대화 중 인상 깊었다는 대목을 소개하며 "키신저 박사는 우리가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 일하고 있으나 이런 노력이 실패하면 이후에는 아시아 지역의 핵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50년 넘게 구축된 비확산 국제규범을 깨뜨리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라며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과학적 수단과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와중"이라고 부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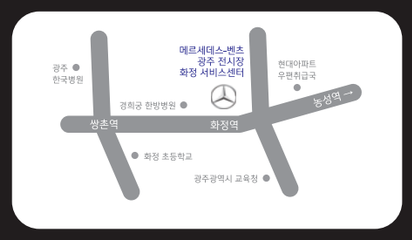
그러면서 "그들(아시아국가)은 그런 (핵)무기 보유가 그들의 안보와 국민에게 더 많은 위험을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온 것"이라며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들은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포함된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늘 실패에는 결과가 따른다. 이 일에 실패하면 북한이 아시아에서 마지막 핵보유국이 아닐 것이라는 키신저 박사의 말이 맞을까 우려된다"면서 북한에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 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심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_2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